

미국 자본 지엠, 한국 국민 혈세 8천 100억 먹고 대량해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560명 해고 통지 ... “고용유지 약속 어긴 한국지엠 강력 응징해야”

지엠 자본이 군산공장 폐쇄도 모자라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 해고에 나섰다. 한국지엠은 정부지원금을 받는 대가로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보란 듯이 짓밟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1월 28일 창원시 성산구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한국지엠 1교대제 전환 중단, 비정규직 대량해고 중단, 함께 살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군산공장에 이어 창원 공장까지 폐쇄하려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지엠은 경쟁력 확보와 신차 생산을 위한 창원공장 1교대제 시행이 불가피하다며, 11월 25일 하청업체를 내세워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560명에게 12월 31일자로 해고한다는 ‘해고 예고 통지서’를 보냈다.

정문진 노조 경남지부장 직무대행(부지부장)은 대회사에서 “한국지엠은 대량해고 계획을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정규직 전환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라며 역설했다.

정문진 직무대행은 “지엠 자본



은 한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 8천 100억 원을 지원받으며 사업장 유지와 노동자 고용 보장을 약속했다”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지엠, 한국 국민 혈세만 먹고 약속은 안 지켜

배성도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장은 투쟁사에서 “한국지엠이 받은 지원금 8천 100억 원에 노동자들이 힘들게 일해 받은 임금에서 떼어 세금이 들어가 있다”라고 일갈했다.

배성도 지회장은 “한국지엠은 1교대제를 해야만 신차 C-CUV를 양산할 수 있다고 한다. 혈세로 지원금을 받으면서 창원공장 1교대제를 한다는 얘기는 아예 없었다”라며 “공장 정상화만 얘기했다. 1교대제로 전환해 공장을 반만 돌리

는 게 공장 정상화인가”라고 비판했다.

배성도 지회장은 “자본은 왜 노동자에게만 경쟁력을 요구하는가. 경쟁력은 신차, 가격, 옵션, 기술 등을 통해 노동자가 아닌 경영자가 책임질 일이다. 경쟁력 없는 회사 임원들이 노동자에게 경쟁력을 요구하는 현실이 우습기만 하다”라고 반박했다.

류조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은 연대사에서 “대량해고가 지금은 비정규직 문제지만 곧 정규직의 문제가 된다. 한국지엠 창원지회는 단체협약이 보장한 대로 근무 형태 변경 등에 합의하면 안 된다. 1교대제 전환과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를 막지 못하면 창원공장도 군산공장처럼 문 닫을 수 있다”라며 연대 투쟁을 호소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부당해고를 거부한다는 의미로 ‘해고 예고 통지서’를 들고 현장으로 출근했다.

노조 경남지부는 오는 12월 6일 집단해고 규탄 투쟁을 시작으로 금속노조 차원에서 강력한 대량해고 저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조경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 당선

한국지엠지부, 안규백-김성갑 후보 조 결선 ... 부산양산지부, 문철상 단독 입후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3기 임원선거에 기호 1번 조경근 지부장(엔진 대형엔진조립 1부)-이용우 수석부지부장(조선 패널 조립5부)-조운성 부지부장(특수선 수중합생산부)-문대성 사무국장(해양 내업생산부) 후보 조가 당선됐다.

11월 27일 하루 동안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지부 유권자 10,276명 가운데 투표자 수는 9,475명(투표율 92.21%)이었다. 기호 1번 후보 조는 5,145표(득표율 54.30%)를 얻어 당선을 확정했다. 조경근 지부장 당선자는 ‘조합원의 염원이다. 영원하라 민주노조’ 를 으뜸 구호로 내걸고 이번 선거에 출마했다.

조경근 현대중공업지부장 당선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임원선거 1차 투표 결과 기호 1번 안규백 후보 조와 기호 4번 김성갑 후보 조가 결선 투표에 진출했다. 한국지엠지부 지부장-수석부지부장-부지부장-사무국장 선거에 모두 여섯 개 후보 조가 입후보해 경선을 펼쳤다.

11월 25, 26일 이틀 동안



별인 한국지엠지부 임원선거 1차 투표에 선거인 7천978명 중 7천459명이 참여했다. 투표율 93.5%를 기록했다. 26일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결과 과반 득표자가 없어 1, 2위인 기호 4번 김성갑 후보 조와 기호 1번 안규백 후보 조를 놓고 2차 투표를 한다” 라고 밝혔다.

기호 4번 김성갑-김득영-박봉기-이준 후보 조가 가장 많은 1,809표(득표율 24.3%)를 얻었다. 다음으로 기호 1번 안규백-홍순기-이한용-제한모 후보 조가 투표자 1,433명(득표율 19.2%)의 선택을 받아 결선 투표에 올랐다.

기호 1번 안규백, 기호 4번 김성갑 양 후보 조는 11월 27일부터 29일 17시까지 선거운

동을 할 수 있다. 12월 2~3일 2차 투표를 통해 최종 당선자를 가린 뒤, 한국지엠지부 선거 일정을 마무리한다.

한국지엠지부,
기호 1번 안규백-기호 4번 김성갑 후보 조 결선

한편,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임원선거에 현재 지부장-수석부지부장-사무국장인 문철상(S&T모티브지회)-정홍형(개별)-정혜금(개별) 후보 조가 단독 등록했다. 부지부장 입후보자는 없다. 1차 투표 일자 는 노조 임원선거와 같은 12월 3일부터 5일까지다.

문철상 지부장 후보는 2005년, 2014년 대우정밀지회(현. S&T모티브) 지회장과 노조 부산양산지부 6~7기, 9~10기 지부장 등을 맡았다. 정홍형 수석부지부장 후보는 전노협과 민주금속연맹-금속연맹에서 활동했으며, 노조 부산양산지부 1~5기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태평양화학 해고자로 조선노협과 금속연맹 등에서 일한 정혜금 사무국장 후보는 노조 부산양산지부 사무국장, 수석부지부장 등을 지냈다.